

# 꼭 있어야 할 학교

보성여자중고등학교장 이 동 욱

(1957~75 본교 교장)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고 말합니다. 존재란 분명히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간에 본질적인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흥망성쇠나 문화의 상하부침 관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세기의 동서양을 종횡무진으로 강타한 몽고의 위력은 젓먹이 어린이들도 몽고 군인이 온다고 하면 울음을 그쳤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몽고족들이 그렇게 위대한가, 또 그들이 인류 역사에 남겨 놓은 유산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참으로 의심스러운 바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희랍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들의 문화유산 또는 히브리 사람들이 끼친 정신적인 유산을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희랍이나 로마는 과연 한 때는 여러 민족을 지배하는 위세를 떨치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정복의 흔적보다는 오히려 헬레니즘과 정치적인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을 남겨준 것으로 생각합

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들이 이룩한 헤브라이즘의 정신적인 창조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정신 세계에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오늘 존재하는 국가나 민족 또는 그들의 문화가 역사적인 존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존재의 의미와 역사적인 사명이 있어 왔기 때문이고 또 그로 인해서 계속 숭앙을 받고 계속해서 인류에게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인성학원의 스물다섯 돌을 맞으면서 25년전에 인성을 세운 그 건학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교육의 요람으로 서해 인천 송학의 기슭에 인성을 세울 때 그분들의 뜻이 얼마나 컸던가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내가 인성 학원에서 20년 가까이 몸담아 일하는 동안에 그들이 세웠던 그 귀한 정신에 항상 머리가 수그러지곤 했습니다. 그 정신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인성학원이 청장을 계속할 수 있었겠고 또 거

기서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그 정신과 그 성과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엇이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정신이 인성 속에 계속 흐르고 있고 그것을 계승하는 모든 인성인이 한가지로 그 정신을 숨쉬고 느끼고 자랑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학교의 성격과 학풍으로 풍겨지고 살아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교훈으로는 신앙과 자유와 봉공의 세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의 그 건학 정신을 표어로서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는데, 우선 인성학원을 신앙의 터전 위에 세우고 교육의 목표와 방법과 그 성과까지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행위한다는 의미인 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본질을 추구하는 노력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나아가서는 그 귀함을 자기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과 민족과 인류전체와 더불어 함께 누리려고 할 때 스스로 자기몸 바쳐 봉사 봉공한다는 고귀한 정신이 그 뜻 가운데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존재의 의미와 존재해야 할 사명이 인성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교직원과 모든 학생들이 그 노력의 초점과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주년을 맞는 인성 학교가 성장을 일단 끝낸 청년으로서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다고 볼 때 이제는 학교가 사회를 향해 해온 교육활동에서도 어떤 결실을 거두는 시기로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할 학교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있어야 할 일들을 오늘 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가 사회적으로도 인정이 되고, 교회나 사회가 모두 꼭 필요로 하는 학교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성학원이 25년 50년 75년 100년 계속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들이 남겨 놓은 진실, 그 뚜렷한 정신이 지속되어서 날마다 발전하고 그 속에서 만족을 얻는 그런 학원이 되어 주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 편집자 주...이 글은 이 동욱 교장 선생님께서 지난 3월 도미하시기 직전에 찾아간 편집기자에 들려 주신 말씀을 녹음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